

主爲我?身



최충희 (작가)

미국 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에서 사모로 섬기다가 2000년 미주 교양지 《광야》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현재는 귀국해 남편과 함께 주님의십자가 교회를 섬기며, 전남대 평생교육원에서 심리치료를 공부하며 상처 입은 이웃들을 섬기고 있다.

저희 집 거실에는 오래된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액자에는 한자로 다섯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단아하면서도 정갈하여 눈길이 가는 붓글씨입니다. 이 액자는 중학교 시절부터 저를 아껴 준 선생님께서 유품으로 남겨 주신 것인데, 선생님의 유언에 따라 가족 분들이 제게 액자를 보내 주신 것이지요. 글씨를 쓴 사람은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라고 합니다. 기독교 작가가 쓴 글이니 신앙적인 내용일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사실 그 다섯 글자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액자 안에 쓰여진 글자 중, 제가 읽을 수 있는 글

자는 네 개였습니다. 첫 번째 글자인 '주님'할 때 '주'(主), 두 번째 글자인 '위하여'할 때 쓰는 할 '위'(爲), 세 번째 글자인 '나'라는 뜻의 '아'(俄), 마지막 글자인 '몸'을 의미하는 '신'(身). 주, 위, 아, 신은 알아보겠는데 네 번째 글자는 제게 매우 생소했습니다.

그렇게 뜻을 잘 알지 못하는 붓글씨 액자가 수년 동안 저희 집 거실에 걸려 있었지요. 저희 집을 방문했던 분들 중에도 그 글자를 아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옆집에 중국 유학생 가족이 이사를 왔을 때 기회는 이때다 싶어 네 번째 글자가 무

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부부는 '사'(捨)자라고 가르쳐 주더군요. 뜻은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저희 부부는 액자 속의 글귀를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위아사신! 주를 위해 나의 몸을 버린다!'

무슨 뜻인지 몰라 구경만 하다가 드디어 액자 속 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자 저희 부부는 오래된 수수께끼를 푼 듯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나를 버린다는 결단과 헌신으로 한 획 한 획 정성 들여 써내려 갔을 작가의 신심을 떠올렸습니다. 액자를 볼 때마다 '나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새롭게 다지곤 했지요.

그런데... 이 해석이 정말 큰 오해였다는 것을, 수년이 지난 후에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이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에서 처음 중국으로 파송한 선교사님 가정이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차를 나누던 선교사님이 그 액자를 한참 바라보더니, "목사님,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아주 잘 쓴 글씨네요!"하며 칭찬하셨습니다.

"예, 그렇지요? 사실 저희는 오랫동안 그 중간에 있는 '사'자가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옆집에 살던 중국 사람이 '버릴 사'자라고 가르쳐 줘서 그제

서야 알게 됐어요. '주님을 위해 나의 몸을 버린다.'주를 위해 죽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는 글귀이지요."

"예에? 목사님, 하하... 그건 거꾸로 해석하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나의 몸을 버린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몸을 버리셨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야 바른 해석이 되는데요!"

"예에? 선교사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 서 나를 위해 몸을 버리셨다고요? 아니, 주를 위해 나의 몸을 버린다, 나를 드린다는 헌신의 뜻이 아니지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저는 선교사님의 말에 깜짝 놀라 껄껄 웃고 있는 선교사님께 되물었습니다.

"하하, 사모님. 그냥 글자 순서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에구머니나! 저희는 여태까지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었네요... 선교사님이 아니었으면 계속 오해하면서 지냈을 뻔했어요. 주위아사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몸을 버리셨다'는 뜻이었군요!"

저는 선교사님을 통해 주위아사신의 올바른 해석을 듣고 마음속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잘못된 해석이 제게는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가지 해석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문제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주위아사신’을 주님을 위해 나의 몸을 버린다는 헌신의 뜻으로 이해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이 잘못된 해석은 아닐까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 해석에는, 그 즈음 제 신앙생활의 단면이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번 생각 안 하고 단번에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많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 저의 신앙생활은 자주 흔들렸습니다. 십자가 사랑, 그 은혜에 이제는 무언가 하나님께 보답해 드려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슬그머니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열심, 헌신, 희생, 선행, 거룩함, 의지, 노력, 경건의 연습... 이런 추구하고 노력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켜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조바심과 죄책감이 저를 점점 조여 왔던 것입니다. 어느새 열심과 헌신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나의 어떤 것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 변질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나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니 영적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었습니다. 어느새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보다 책임과 의무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고행자의 모습, 그 모습이 그 즈음 제 모습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온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종교적 형식의 껍질에 싸여 있는 내면의 어두운 모습. 스스로의 열심에 근거를 둔 신앙생활. 그런 저의 모습은 마치 ‘주위아사신’을 ‘주를 위해 나의 몸을 드린다’고 거

“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
(엡2:8)

꾸로 해석하고도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은 연유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을 가지고 충성, 헌신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 열심과 헌신에 앞서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고 싶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아 누리시는 것이 우선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위아사신’(主爲我捨身).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 불륜을 높여요

“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2:8-9).”